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에 관한 연구*

- 주요 한인단체와 매체를 중심으로 -

Information Activities of Korean Ethnic Community in Japan

이 제 환(Jae-Whoan Lee)**

노 지 현(Jee-Hyun Rho)***

〈 목 차 〉

- | | |
|---------------------|-------------------|
| I. 서론 | 1. 주요 한인단체의 현황 |
| II. 재일한인의 고민과 정보행태 | 2. 한인단체의 정보활동 |
| 1. 일상적 고민의 실체 | 3. 매체를 통한 정보활동 |
| 2. 일상적 정보추구행태 | IV. 정보활동의 한계와 문제점 |
| III. 한인단체와 매체의 정보활동 | V. 결 론 |

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재일한인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러한 정보활동이 재일한인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대처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한인의 밀집 거주 지역으로 알려진 오사카와 동경 등지의 한인단체와 기관 그리고 언론사 등 모두 5곳에 대한 방문조사 및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정보행태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동일한 지역의 한인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병행하였는데, 설문조사에는 767명이 면담조사에는 65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논의의 전개는 한인단체와 정보매체의 전반적인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그들의 활동을 일상적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그들의 정보활동이 재일한인의 정보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한인단체와 매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활동의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정보활동, 정보요구, 정보행태, 정보환경, 소수민족사회, 재일한인, 재일동포, 재일한인사회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overall information activities of Korean ethnic community in Japan, and to discuss about the relevance between such information activities and the information need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the end, 51 Korean ethnic organizations and media were visited for the investigation of their information activities, and 767 Korean residents were surveyed and 65 Korean residents were interviewed for the assessment of their information need and behavior. The discussion includes: (1) the everyday information need and behavior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2) the major information activities of Korean ethnic organizations and media, (3) the relevance of the Koreans' information behavior and the Korean organizations' information activities, and finally (4) a suggestion on the desirable future directions and roles that the Korean ethnic organizations and media should seek for the overall Korean ethnic community's healthy development.

Key Words: Information Activities, Information Need,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Environment, Ethnic Minority, Korean Ethnic Community in Japan, Korean Residents in Japan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과제로 수행되었음. (KRF 2003-005-A00005)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jwleeh@pusan.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jhrho@pusan.ac.kr) (공동저자)

• 접수일: 2005년 11월 1일 •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12월 5일

I. 서론

우리 연구팀은 2003년 9월부터 2년 가까이 60여만 在日韓人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행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목적은 재일한인의 삶을 그들의 일상적 정보행태와 그들이 처해 있는 정보환경을 통해서 가늠해 보고, 이를 통해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을 개선하고 재일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제 우리의 연구는 거의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오사카, 동경, 교토, 고베, 나고야 등 재일한인의 밀집 거주 지역을 네 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때로는 그들의 일상에 뛰어들어 그들이 겪는 고충과 애환의 실체를 직접 관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문조사의 결과 중에서 재일한인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와 관련한 부분은 이미 세 편의 논문으로 완성하여 관련 학회지 등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¹⁾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서 발표한 세 편의 논문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앞서의 논의가 재일한인이 소수민족 집단으로서 가지는 사회행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일상적 삶을 정보행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무게를 두었다면, 이번 논의의 핵심은 재일한인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 정보활동의 실체를 그들 사회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혹은 기관)와 정보매체의 현황과 실태를 통해 파악하는데 있다. 앞서의 연구에서 우리는 재일한인사회에는 많은 단체가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고 다양한 정보매체가 생산되어 유통 중에 있지만 일상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원으로서의 그들의 역할과 기능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선 논의가 우리 연구팀이 실시한 설문과 면담조사에 참가했던 한인들의 ‘견해’를 빌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논의는 이들 단체와 정보매체에 대한 우리 연구팀의 직접적인 방문과 관찰 그리고 분석에 근거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논의를 위해 우리 연구팀이 2004년 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방문했던 재일한인사회의 주요 단체는 모두 51곳이었다. 이들 단체는 재일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공식 단체(民國, 朝總連 등)에서부터 재일한인이 설립하여 운영 중인 정치, 경제, 교육, 복지, 그리고 법률 관련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망라한다. 이들 단체 외에 재일한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와 방송국 그리고 재일한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서점과 도서관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일한인사회 내부에서 유통되고 있는 매체 중에서 일상적 정보원으로 나름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한 주요 단체의 기관지와 잡지 그리고 생활정보지 등을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그 내용과 유용성을 분석하는 등, 재일한인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 이제환·정수원·송정숙, “일상적 고민을 통해 본 재일한인의 삶,” 韓國民族文化 제23집(2004. 4), pp.149-186; 이제환·장덕현·이연옥, “在日韓人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關西지역 거주 한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3호(2004. 9), pp.221-248; 이제환, “東京지역 韓人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오사카지역 韓人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1호(2005. 3), pp.91-116.

다양한 일상적 정보활동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II. 재일한인의 고민과 정보행태

우리 연구팀이 재일한인사회의 주요 단체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활동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러한 정보활동이 재일한인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직면하는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재일한인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 정보활동의 대부분은 소수민족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재일한인이 안고 있는 고민이나 관심, 즉, 주류 사회의 구성원인 일본인과는 다른 그들만의 고민이나 관심에 대처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설문과 면담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 있는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특히 일상적 고민의 유형과 정보요구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해결을 위한 정보의 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²⁾

1. 일상적 고민의 실체

재일한인이 안고 있는 일상적 고민은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체류자격에서의 차이만큼 실로 다양하다. 즉, ‘성별’과 ‘연령’ 그리고 ‘직업’은 물론이고 ‘世’와 ‘거주연한’ 그리고 ‘채유신분’ 등에 따라 일상적 고민의 유형과 실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재일한인의 일상적 고민은 ‘일본사회에 대한 적응 및 정착의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일본에 정착한 기간이 길어 사회문화적 적응의 단계를 나름대로 넘어서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올드커머 중심의 집단에서는 2~4세 한인들을 중심으로 민족정체성과 사회참

2) 앞서 소개한 세 편의 논문에서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의 결과를 지역적 혹은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선별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으나 재일한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여기서는 종합적인 분석 결과 중에서 이 논문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이터를 일부 활용하였다. 참고로 설문조사에는 총 767명이 면담조사에는 65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48.6%)과 여성(45.9%)이 비슷한 비율로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10대부터 7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42.6%)과 고졸(31.4%)의 학력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직업은 상당히 다양했으나 사무직 종사자(26.7%)와 자영업자(15.9%)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국적은 한국국적 소유자가 압도적이며(83.2%), 세대에 있어서는 한인 1세(18.5%)와 3세 이상(18.8%)에 비해 2세(32.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적과 세대에 대한 질문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각각 10.7%와 30.5%), 이것은 재일한인 사이에서도 뚜렷한 구분이 어렵거나 미묘한 인식의 차이로 답변을 회피한 것이라는 점을 면담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이 45.5%, 오사카지역을 비롯한 관서지역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이 54.5%를 점하고 있다.

여를 둘러싼 ‘현실론과 이상론’의 충돌이 곳곳에서 목도되었고 동시에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 와 같은 ‘안정적 삶’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고민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반면에, 일본으로 이주한 기간이 비교적 짧아 사회문화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지 못한 뉴커머 중심의 집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고민에서부터 자녀의 교육을 둘러싼 가치적 갈등, 심지어 체류신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유형의 고민이 관찰되었다.

다음의 <표 1>은 재일한인의 이러한 일상적 고민을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다양한 고민 중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일상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의 조사에 응한 한인의 약 27%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문제를 가장 심각한 일상적 고민으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일제시대 일본으로 건너가 해방이후에도 계속 일본에 잔류해 온 한인 및 그 후손들(즉, 올드커머 집단)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으로의 귀화를 거부하고 ‘특별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노년층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재일한인사회의 뿌리라 할 수 있는 1~2세에 해당하는 노인층의 다수가 아직까지도 의료보험을 비롯한 일본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로 부터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이처럼 상당수의 한인들이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보니 일상생활의 영위 자체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³⁾

<표 1> 일상적 고민의 유형

유 형	첫 번째 고민		두 번째 고민		가중치에 따른 고민의 비중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취업사업	182	23.7	59	7.7	18.4
육아교육	124	16.2	49	6.4	12.9
연애결혼	29	3.8	24	3.1	3.6
건강안전	207	27.0	142	18.5	24.1
노후복지	67	8.7	110	14.3	10.6
출세승진	13	1.7	16	2.1	1.8
여가생활	18	2.3	33	4.3	3.0
대인관계	38	5.0	112	14.6	8.2
사회참여	23	3.0	46	6.0	4.0
정체성	25	3.3	49	6.4	4.3
자아실현	21	2.7	24	3.1	2.9
무응답	20	2.6	103	13.4	6.2
계	767	100.0	767	100.0	100.0

‘건강과 안전’에 이어 ‘경제적 안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인의 비중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

3)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노후의 복지’를 가장 심각한 일상적 고민으로 응답한 한인이 8.7%에 이르며, 이들 중 다수가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라는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났다. 조사대상자의 1/4에 해당하는 약 24%가 취업 혹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로 꼽았다. 사업에 성공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소수 한인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의 한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지 못함은 익히 밝혀진 사실이지만, 우리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에 정착한지 오래된 한인들 보다는 근자(1980년대 후반 이후)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청장년층의 한인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블경제의 붕괴이후 지속되어온 일본경제의 침체와 경제활동과 관련한 일본사회로부터의 구조적인 차별이 재일한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인사회 내부(가령, 民団係와 總連係, 올드커머와 뉴커머, 사업가와 노동자 간의)의 갈등과 반목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육아 및 자녀의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의 규모 또한 결코 적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의 약 16%가 '육아 및 자녀의 교육' 문제를 1순위의 고민거리로 꼽았는데, 특히, 민족정체성의 유지에 대한 '의무감'과 비싼 교육비를 둘러싼 경제적 이해가 민족학교와 일본학교에 대한 선택에 있어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자녀의 교육' 문제는 학령기의 자녀를 둔 한인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상적 골칫거리였다. 이러한 '민족'교육과 '현지'교육을 둘러싼 고민은 이제 막 일본에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려고 시도하는 신진 이주 집단(뉴커머)에서는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적응기를 이미 거친 기존의 정착 집단(올드커머)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비싼 교육비에 더해 수적 한계와 시설의 노후 그리고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민족학교 보다는 일본학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한인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더해, 대인관계(8.2%), 사회참여(4.0%), 연애결혼(3.6%), 여가생활(3.0%), 자아실현(2.9%), 출세승진(1.8%)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가 한인들의 주요한 일상적 고민거리로 지목되었는데, 연령이나 직업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이러한 고민의 유형에 있어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가령, 老(熟)년층의 한인들에게서는 '여가의 활용'과 '자녀의 결혼'과 관련한 고민이, 장년층에서는 '사회참여'와 '대인관계'에 관한 고민이, 청년층에서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자아의 실현에 관한 고민이, 그리고 출세와 승진과 같은 사회적 성취에 관한 고민은 청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고민의 순위에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재일한인이 당면해 있는 일상적 고민은 그 유형에 있어 소수민족집단만의 특성을 도드라지게 내보이기보다는 일반사회집단에서 흔히 발견되는 고민의 유형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설문에 이어 행해진 심층면담을 통해 밝혀진 고민의 '속내'에는 소수민족이기에 겪어야 하는 애환의 실체가 그대로 녹아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일상적 고민은 개인적 장애보다는 사회구조적 장벽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동양계 異民族 특히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과 규제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한인의 대부분은 주류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보장제도로부터

터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들이 갖게 되는 가장 커다란 고민은 ‘육체적인 건강과 물리적 안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다. 더불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일본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감을 동시에 유지하는 문제를 놓고 그들은 갈등하게 되고, 그러한 갈등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또 다른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일상적 정보추구행태

재일한인이 일상에서 당면하는 고민의 유형 못지않게 우리 연구팀의 관심을 끈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어떠한 행태를 보이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먼저 고민의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고자 함에 있어 그들이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았다. 조사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약 15%에 이르는 한인은 ‘고민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갈 뿐’ 고민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를 얻고자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정보의 추구에 있어 적극성은 차치하고 정보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무지함과 무관심이 짙게 배어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의 85%가 ‘고민의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70%)은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고민에 대처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다보니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이내 한계를 절감하고 고민의 해결을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행태가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고민의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를 얻고자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한인은 조사대상자의 15%에 불과하였다.⁴⁾

여기서 우리 연구팀의 관심은 ‘재일한인이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일상적 고민에 봉착하였을 때 도움을 구하고자 우선적으로 손을 뻗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로 옮겨갔다. 다음의 <표 2>는 그러한 관심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표에 나타나듯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은 가족(친척을 포함)(53.1%)이나 친구(21.8%)였다. 이에 비해 전문가를 찾거나 관련단체(혹은 기관)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는 비율은 각각 5.0%와 5.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이처럼 재일한인은 전문가나 관련단체와 같은 공식적인 정보원보다는 혈연이나 친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보원을 ‘일상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의 공급원’으로 더욱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

4) 설문조사 결과, 고민의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고자 ‘주변의 도움을 구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116명으로 단지 15.1%에 불과하였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10대, 20대, 30대가 전체의 34.4%인데 반해 40대, 50대, 60대 이상이 65.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에 있어 고졸이나 대졸이상보다는 중졸이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 답변한 한인 중에는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 중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한다고 답변한 한인 중에는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외에 성이나 직업, 세대, 지역 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재일한인이 선호하는 정보원

구분	빈도	퍼센트
가족(친척 포함)	407	53.1
친구	167	21.8
이웃	21	2.7
직장동료	27	3.5
전문가	38	5.0
관련단체	44	5.7
무응답	63	8.2
계	767	100.0

여기서 다시 연구팀의 작업은 ‘가족이나 친척과 같은 명백한 신뢰관계’에 있는 정보원을 제외하고 재일한인이 일상적 정보원으로 선호하는 사람과 단체(혹은 기관)의 정체를 규명하는 작업으로 옮겨갔다. 다음의 〈표 3〉은 이에 대한 정량적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먼저 사람에 있어, 재일한인이 일상적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일본인보다는 한국인(혹은 조선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단체의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 한인단체보다 일본단체(혹은 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⁶⁾ 이러한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팀의 관심을 특히 끌었던 것은 한인단체에 대한 선호도가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특정’ 집단들이었다. 가령, 한인 1세로 학력이 낮은 고령자 집단에서는 한인단체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다.⁷⁾ 또한 상황은 다르지만 일본에 정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한인들 사이에서도 한인단체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⁸⁾ 이처럼 같은 재일한인이라도 재유자격이나 연한, 직업이나 연령, 세대나 국적, 혹은 과거의 경험 등과 같은 변수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원의 실체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일본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일본에 살고 있는 한

- 5) ‘혈연이나 친분’에 기반한 비공식적 정보원에 대한 이러한 선호 현상은 소수민족집단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행태연구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단 선호도에 있어 후자보다는 전자 집단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번 조사결과는 재일한인 또한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님을 확연히 보여준다.
- 6) 이것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거나 유사한 경험을 가진 한인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문화와 의식이 다른 일본인에 접근하는 것보다 편익하지만, 단체의 경우 한인단체보다는 일본 주류사회의 단체(혹은 기관)이 문제해결에 있어 실질적으로 유용하다는 경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일상적 대소사에 관한 정보를 관련단체로부터 구한다는 응답은 재일한인 중에서도 ‘한국’이나 ‘조선’ 국적을 가진 한인보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 사이에서 보다 많았으며, 더불어 일본기관에 대한 이러한 선호 현상은 일본기관으로부터 도움과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 종사자나 학생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7) 그들 대부분이 일제에 의한 침략 전쟁의 피해자이면서 일본사회로부터의 심한 차별과 수모를 몸으로 겪어왔던 만큼 일본기관으로부터 도움을 구한다는 생각은 그들의 의식에서 근본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조선’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초기의 정착 세대와 그 후손들 사이에서 한인단체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이 한인단체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朝鮮連에서 일상의 영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정보서비스를 통해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아온 한인이 많았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 8) 비록 한인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지엽적이고 단편적이라 할지라도 ‘낯선 곳에서 정착을 시도’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인'은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재일한인'으로서의 제3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으로 귀화하여 아예 일본인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한인사회와 단절하고 일본사회에 깊이 숨어들어간 한인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한국이나 조선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인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인의 대다수는 '재일한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일한인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표출된다. 그러하기에 비록 높은 수준의 만족을 표하지는 않지만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한인들이 일상적 정보를 구하는 소스로 한인단체를 꾸준히 찾고 있는 것이다.

〈표 3〉 정보원의 실체

구분	사람			기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한국(조선)	378	49.3	57.0	260	33.9	41.2
일본	285	37.2	43.0	371	48.4	58.8
무응답	104	13.6		136	17.7	
계	767	100.0	100.0	767	100.0	100.0

그러나 이렇듯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일상적 정보원으로서의 위상과 달리 한인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한 유용성'의 면에서 볼 때 양적 한계와 질적 문제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연구팀의 관찰과 분석에 의하면 民団이나 朝總連과 같은 대표적인 한인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활동조차 한인들의 다양한 일상적 정보요구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한인들의 일상적 고민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객관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한인정보센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몇몇 한인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정보제공 활동을 전개하고는 있지만 규모나 내용이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시스템이나 인력의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용성에 대한 지적은 면담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한인들 입에서도 한결같이 이어졌다. "아쉬운 대로 어쩔 수 없이 찾아가긴 하지만 도대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렇다면 '비록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쉬운 대로 일상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얻고자 많은 수의 재일한인들이 찾아가는 이들 한인단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재일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단체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 정보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찬찬히 논의해 보자.

Ⅲ. 한인단체와 매체의 정보활동

우리 연구팀이 재일한인사회에 관한 국내외의 각종 문헌, 재일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인〈民団〉과〈朝總連〉에서 간행한 자료집, 그리고 동경과 오사카 등지의 한인상가에서 유통되는 한인엽소록 등을 참조하여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한인단체(혹은 기관)은 모두 100여 곳이었다. 그들 중에서 세 차례에 걸친 설문과 면담조사를 통해 '대표성'을 검증하고 재일한인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의 자문을 통해 영역별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60여 곳 추려내었다. 이 최종 리스트에는〈民団〉과〈朝總連〉을 비롯하여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한인단체는 물론이고, 재일한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 방송국, 출판사, 서점, 그리고 재일한인 밀집거주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등을 망라적으로 포함하였다. 이들 중에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문조사를 거절당한 朝總連 계열의 단체를 제외하고 우리 연구팀이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하고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조사를 한 단체는 모두 51곳이었다. 다음의〈표 4〉는 우리 연구팀이 방문조사를 수행한 한인단체들을 '정체성과 활동내역'에 따라 나름대로 분류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⁹⁾

1. 주요 한인단체의 현황

재일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종합적' 성격의 단체로는〈在日本大韓民國民団(이하, 民団)〉,¹⁰⁾〈在日本朝鮮人總連合會(이하, 總連)〉,¹¹⁾〈在日本韓國人連合會(이하, 韓人會)〉¹²⁾ 등이 있다. 이

9) 〈표 4〉에 정리한 것처럼 이 논문에서는 이들 단체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더해 '민생과 관련한' 이들의 주요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이들 단체의 연혁과 역사, 역할과 기능, 주요 활동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는 2006년 5월경에 발간할 단행본에 수록할 예정이다.

10) 〈民団〉은 1946년 10월 3일 '在日本朝鮮居留民団'으로 발족하여, 1994년에 '在日本大韓民國民団'으로 개칭하였다. 조직은 중앙본부와 49개의 지방본부, 320개 지부, 259개 분단, 2,434개 반조적으로 구성되며, 2005년 현재 약 49만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지난 50여 년 간〈民団〉은 한인들의 공영주택 입주와 국민연금 가입, 금융차별 철폐운동, 출입국 관리법 개정, 국공립대학 교원 채용문제 등 주로 권익옹호 차원의 민족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시적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民団〉은 한국정부를 대변하는 관변단체로서의 역할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조직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내부 갈등에 시달리면서 재일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약화시켰다. 특히, 모국(한국)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한인들의 일상적 민생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소홀하였기 때문에〈民団〉에 대한 재일한인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다.

11) 〈總連〉은 1945년에 창설된『在日本朝鮮人連盟』(朝連)을 모체로 하며 1955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조직은 중앙본부와 48개 지방본부, 그리고 다수의 지부 및 분회로 구성되며 2005년 현재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다. 지난 50년간〈總連〉은 일본과 국교가 없는 북한의 사실상의 공관 역할을 해왔으며, 북한계 재일한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간 교섭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민생관련 주요활동으로는 한인들의 관혼상제, 경제활동, 법률문제, 결혼, 교육, 의료복지 등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여 조직적인 대응과 해결방안 제공하여 왔는데, 이를 위해 總連본부와 지부에「同胞生活相談綜合センター」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2) 2001년에 동경지역 뉴커머 상공인들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韓人會〉는 2005년 현재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들 3개의 단체를 '종합'적인 성격의 단체로 분류한 까닭은 이들이 비록 역사와 규모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재일한인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을 '정체성'에 따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가령, 〈民團〉이 '한국국적'을 가진 재일한인을 대표하는 '공식적' 단체라면 〈朝總連〉은 '조선(북한) 국적'의 재일한인을 대표하는 '공식적' 단체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지니고 있다.¹³⁾ 이들 두 단체가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지면서 울드커머가 주축이 되어 재일한인의 '정치적 위상', '경제적 안정', '사회적 복지' 등을 위한 복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비해, 세 번째 단체인 〈韓人會〉는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뉴커머 집단의 이해를 대표하는 신흥 단체로 신진 이주자들이 일본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 세 단체 외에 경제, 교육, 종교 등 각 분야별 주요 한인단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일한인의 경제적 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경제단체로는 〈在日韓國商工會議所〉¹⁴⁾와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¹⁵⁾ 등이 있다. 다음, 대표적인 교육단체로는 일선의 현장에서 민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민족학교'¹⁶⁾와 민족교육의 촉진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民

- 약 3,500명의 회원을 가진 제3의 한인단체로 부상하고 있다. 약 18만 명에 이르는 뉴커머 집단의 관심과 이해를 대변하고 그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삼고 있는 〈韓人會〉는 뉴커머 한인들 사이의 정보 공유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가령, 재일한인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이 단체에서는 뉴커머를 대상으로 '일본어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 〈韓人會〉에서는 민생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상담실'을 설치하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비자 상담, 회사 및 사업체 설립 상담, 영주 및 정주권 취득 상담, 불법체류자들의 안전한 귀국과 재류허가 안내 등과 같은 각종 세무 및 법률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도 병행하면서 일본인들의 한인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동경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세를 확장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 13)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는 조선(북한) 국적을 가진 總連係 재일한인이 월등히 많았으나 民團에서 영주권신청 운동을 시작한 1966년 1월부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일한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9년부터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한인이 북한 국적을 가진 재일한인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경제적 활동(한국과의 교역 등), 일본인 복종문제, 북한의 경제악화 등의 이유로 다수의 總連係 한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부터 總連의 세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14) 1962년에 창설된 〈在日韓國商工會議所〉는 民團 계통의 상공인들의 모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중앙본부와 동경지부를 비롯한 28개의 지방지부를 두고 있는데 2005년 현재 개인·법인을 포함하여 약 1만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으로는 재일동포기업의 재생 지원(채권 및 금융상담, 법률상담, 전문가 소개 등), 상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무 상담 및 경제세미나 개최, 상공인 업종별 네트워크 형성, 동포 2~3세 상공인의 육성, 그리고 취업 알선 등을 들 수 있다.
- 15) 總連 계열의 상공인들의 모임인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는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창설된 재일한인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경제단체로 45개 都道府縣에 지방상공회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으며, 2005년 현재 개인·법인을 포함하여 약 3만여 회원이 가입해 있다. 이 단체는 재일조선인 상공업자의 기업활동에 관한 권익보호와 경영지원을 목표로 각종 세미나 개최, 세무상담(소득세, 결산, 신고 등 일체의 행위)과 영업지원(요식업, 유기업, 건설업 등 업종별 협의회 설립, 세미나와 연수회 활동), 경영진단(경영분석에서부터 경영개선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에 의한 어드바이스), 각종 등록업무(법인설립등기, 법인의 각종 변경등기)와 허가신청수속, 금융상담, 융자상담, 각종 단체와의 제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16) '민족학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한국어 교육 및 민족교육을 중시하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민족교육사업을 전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 민족학교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4개의 韓國學院과 朝總連에서 운영하는 90개 정도의 朝鮮學校가 있다. 韓國學院은 동경의 韓國學院과 오사카의 金剛學院, 建國學校, 그리고 교토의 白頭學院이 있는데, 이 중 동경 韓國學院은 한국에서 온 주재원 자녀 등 일시거주자

族教育文化センター)와 〈民族教育ネットワーク〉 등이 있다.¹⁷⁾ 이어, 종교단체 중에서는 기독교 관련 단체가 가장 활동이 활발한데 올드커머 중심의 〈大阪教會〉와 뉴커머 중심의 〈ヨドバシ東京教會〉가 가장 규모가 크며, 동경의 〈在日本韓國YMCA〉와 오사카의 〈在日大韓基督教會〉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재일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복지단체로는 總連 계열의 〈在日同胞福祉連合會〉와 民団 계열의 〈在日同胞福祉協議會〉가 있으며, 일선 현장의 복지시설로는 개인이나 인권단체 등에서 일본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일정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さらんばん〉,¹⁸⁾ 〈あんばん〉, 〈エルファ〉, 〈サンボラム〉¹⁹⁾ 등과 같은 데이서비스 시설과 일본사회의 각계각층으로부터 후원금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는 〈故郷の家〉과 같은 종합 양로시설이 있다. 이러한 복지단체에 더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치는 법률, 결혼, 취업과 같은 민생 관련 문제를 다루는 단체가 재일한인사회에

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 또한, 오사카의 建國學校와 金剛學院은 일본정부가 인정한 정식 교육기관으로서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조에 따라 일본 교육과정과 내용을 따르면서, 민족학교의 특색을 가미한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식 교육체제에 따라 일본 검정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어, 한국사, 한국음악 등의 교과목을 추가하고 있다. 반면, 교토의 白頭學院과 總連에서 관할하는 90 여개의 朝鮮學校에서는 일본의 학교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교과과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방식에 따라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학교교육법상 '各鐘學校'로 분류되어 정식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민족교육은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4개의 韓國學院보다 '朝鮮學校'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들 朝鮮學校는 總連에서 운영하는 '朝鮮大學校'와 일본대학을 졸업한 동포들을 교사로 채용하여 민족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2003년에는 朝鮮學校의 교과서를 일괄 개편하여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민족적 소양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總連이나 總連 산하단체의 보조가 약간 있을 뿐 거의 대부분 학부모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으로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교육연구모임'이나 '교육연구회' 등을 통해 朝鮮學校 교사들 간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일본인학교의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학교의 한인학생들에 대한 교육 등을 논의하기도 한다.

- 17) 전문직 종사자나 시민사회운동가 등 한인 2~3세가 중심이 되어 활동 중인 이들 두 단체는 주로 재일한인의 민족 교육권 확보(민족교육 권리선언의 보급, 일본학교 내에 민족학급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일본문부성 및 학교와의 교섭)를 위해 주력하면서 민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한인사회와 일본 지식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18) 〈さらんばん〉은 2001년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개관하였다. 현재 야간중학교를 졸업한 재일한인 1세 할머니(70%)와 지역의 1세 할머니(30%)를 대상으로 컴퓨터와 배움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사카 지역에 약 200명의 할머니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さらんばん〉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활동으로는 ① 재일한인 1세 할머니들의 배움과 놀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② 일본사회의 고령자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일한인 1세를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③ 병원정보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④ 재일한인 1세의 복지문제에 대해 일본 복지기관 및 운동단체 등과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⑤ 고령자를 위한 역사, 사회, 문화 강좌를 개설하거나 ⑥ 영화상영과 같은 문화활동을 매월 혹은 연중 로 전개하고 있다.
- 19) 재일한인 1세들은 일본의 양로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음식을 먹고, 한국방송을 듣고, 한국인 말벗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쟁을 직접 체험한 재일한인 1세들은 전쟁 당사자인 일본인들과의 공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國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KMJ)에서는 재일한인 고령자들을 위한 양로 시설 〈サンボラム〉을 만들게 되었다. 현재 오사카, 고베 등 4군데에 〈サンボラム〉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주로 재일한인 2세들을 고용하여 1세들을 돌보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인 1세들의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사회의 취업차별로 인해 취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던 50대 한인 2세 여성들의 취업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KMJ에서는 이외에 인권차별에 대한 상담과 재일코리안과 마이너리티의 인권 및 복지문제에 대한 연구, 재일한인에 대한 책자나 비디오 자료 기획 등과 같은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는 다수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總連에서 전국적인 지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同胞生活相談綜合センター〉, 〈同胞結婚相談中央センター〉, 〈同胞就職情報センター〉를 비롯하여, 한인 2~3세 법률가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同胞法律・生活センター〉, 한인가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韓國人法律救援センター〉,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セヌリ文化情報センター〉 등이 있다

이러한 민생 관련 단체에 더해, 단체의 성격 구분이 다소 애매하지만 재일한인사회에는 한인들의 인권 증진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NGO 형태로 운영되는 인권단체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는 〈民団〉과 〈總連〉의 정치적·이념적 갈등과 분열에 실망한 한인 2-3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KOREA NGOセンター〉²⁰⁾ 와 〈在日同胞の生活を考える會〉²¹⁾ 가 있다. 이들은 ‘한국인’도 ‘조선인’도 아닌 ‘재일’을 정체성으로 삼아 일본 주류사회와의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진보적 성격의 한인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그 밖의 주요 인권단체로는 〈在日韓國民主人權協議會〉, 〈在日朝鮮人人權協會〉, 〈在日コリアン人權協議會〉, 〈國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KMJ)〉, 〈多民族共生人權教育センター〉, 〈東北亞平和連帶〉, 〈在日外國人障礙者の年金訴訟を支える會〉 등이 있다. 이에 더해 젊은이들의 조직으로 〈在日韓國青年同盟〉과 〈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 〈在日韓國學生會〉, 〈在日本朝鮮青年同盟〉 등이 있으며, 여성들만의 조직으로는 〈在日韓國民主女性會〉가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인권단체라기보다는 정치단체로 볼 수 있는 〈韓國民主回復統一促進國民會議〉(韓民統)의 후신인 〈在日韓國民主統一連合〉 등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4〉 주요 한인단체와 활동과 발간자료

유형	단체명	창설 년도	민생 관련 주요 활동	발간자료
종합	在日本大韓民國民団	1946	대표적인 재일한인기관, 재일한인의 생활권 확보와 국적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족교육의 진흥과 민족금융기관의 설립에 앞장섬, 고령자 복지서비스, 결혼·취업·생활상담 등을 제공	《民団新聞》 《民団新報》
	在日本朝鮮人總連合會	1955	일본과 국교가 없는 북한의 사실상의 공관역할, 조선 국적 한인들의 경제활동, 법률문제, 결혼문제, 교육문제, 의료복지문제 등 생활상의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조직적인 대응과 해결방안을 제공함	《朝鮮新報》

20) 2004년에 〈民族教育文化センター〉, 〈在日韓國民主人權協議會〉, 〈ワンコリア フェスティバル〉 등 3개 기존 시민사회단체가 통합하여 출범한 신흥 한인단체로 ‘국가와 이념을 넘어선 차별없고 평화로운 시민사회 만들기 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주요 활동으로는 조국통일 이전에 재일한국·조선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마당개최, 재일코리안의 민족적 정체성 및 자긍심을 기를 수 있는 민족교육권 확보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 단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One Korea Festival’을 들 수 있는데, 이는 1985년 해방 40주년을 계기로 재일한국인과 조선인이 ‘One Korea’의 상징이 되어 조국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21) 1987년에 대학재학 이상의 재일한인 청년들이 모여 삶의 방향을 모색하면서부터 시작한 모임으로, 현재 이 단체의 회원들은 대학교수,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의 지식인 계층에 속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동경대학의 강상중 교수와 재일한인 제1호 변호사인 김경득 등이 있다. 이들은 재일코리안의 생활과 자주적인 삶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재일코리안운동의 사상적·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종합	在日本韓國人連合會	2001	뉴커머 재일한인의 이해를 대변하기 조직된 자치 단체. 뉴커머 재일한인이 일본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생활·교육·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함	《韓人會報》
	KOREA NGO センター	2004	재일한국·조선인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국가와 이념을 넘어선 차별없고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에 주력. 재일한국·조선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행사와 민족적 자긍심을 기를 수 있는 민족교육운동 등을 전개	《コリアNGOセンター - News Letter》
경제	在日韓國商工會議所	1962	재일한인상공업자의 사업 지원 및 상공인들의 친목 도모. 재일한인기업의 상공 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무 상담 및 경제 세미나 개최. 상공인 육성과 취업 알선	《架け橋》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	1946	재일조선 상공업자의 경제활동을 지원. 성공사례비결 세미나 개최 및 재무관리, 직원관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경영진단 및 세무상담	《朝鮮商工新聞》 《同胞經濟研究》
	主日韓國企業連合會	1993	일본 진출 한국경제인의 협력강화와 권익옹호. 일본정부에 대한 각종 건의 및 교섭활동 전개. 회원 상호간 친목증진 및 정보교환	
교육	民族教育文化センター	1984 (?)	재일한인들에게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홍보. 민족학급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일본정부와 교섭활동 전개	《한길》
	民族教育ネットワーク		재일한인의 민족교육권 확보 및 일본학교문화의 개혁 운동 전개. 민족교육의 보급을 위해 일본시민사회에 폭넓은 협력과 연대사업 전개	민족교육과 관련된 단행본 다수
	民族學校(4개의 韓國學校와 90여개의 朝鮮學校)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 한국어(조선어)와 역사, 문화 등 민족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	
종교	在日本韓國 YMCA	1906	한일문화 교류와 다문화 공생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 재일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강좌(한국어, 장구, 한국무용 등) 개설	
	在日大韓基督教會	1906	재일코리안을 대상으로 선교활동 전개. 재일한인의 인권 운동 및 법률상담, 여성문제·노인복지문제 상담	《결음》 《連》
민생상담	同胞法律・生活センター	1997	재일코리안의 생활과 권익향상을 위해 법률문제, 복지문제, 취직 및 입거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人權と生活》 등
	韓國人法律救援センター		한인기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 자문 단체.	
	同胞生活相談綜合センター		總連에서 운영하는 종합상담센터. 재일조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ハナ》
	同胞結婚相談中央センター	1994	總連에서 운영하는 결혼상담센터. 동포들 간의 결혼 주선 전통 혼례의식 상담, 각종 결혼정보 제공	《響》
	セヌリ文化情報センター	1986	재일한인들에게 결혼정보를 비롯한 각종 문화정보 제공하는 사설단체	《セヌリ》
	同胞就職情報センター		재일한인들에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센터. 지역별/직종별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강좌 개설	
복지	在日同胞福祉連合會	1998	總連에서 운영하는 전문 복지단체.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교육, 의료, 복지정보 제공	《未來》
	在日同胞福祉協議會		민단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	
	さらんぱん/あんぱん/エルファ	2001	재일한인 1세를 위한 복지시설. 병원정보 및 건강상담, 각종 문화활동 제공	《エルファ 通信》 등
	サンボラム	1998	재일한인 고령자를 위한 양로시설	
	故郷の家	1989	재일코리안을 위한 노인양로시설. 한일교류 세미나와 복지사업 양성 프로그램 개설	《こころの家族》
	東京ドラジ會	1995	재일한인 1세를 위한 데이스터비스. 재일한인 1세들의 놀이와 친목도모의 장을 제공	
	ムジゲ會	1995	재일한인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총련에서 운영하는 정보교류의 장. 친목회(격월)와 전국집회(격년) 개최	
기타	在日韓國民主人權協議會	1990	재일한인의 인권향상과 한일 시민의 파트너십 함양을 위해 결성한 NGO 단체. 국적차별 철폐운동 및 민족교육권 확보운동 등 전개	《民權協ニュース》

기타	在日本朝鮮人人權協會	1994	재일조선인의 인권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總連 산하단체,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 및 상담, 출판, 연구활동 전개	《人權と法律》
	在日コリアン人權協議會	1995	재일한인의 인권과 차별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운동단체, 법적 대응이나 제도적 권리확보 전개	《在日コリアン人權協議會ニュース Liber》
	國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KMJ)	1987	일본에서의 공생을 지향하면서 재일코리안과 마이너리티의 인권문제 연구, 교육이나 취업 등 각종 차별문제 상담 인권에 대한 의식개혁운동 전개	《Sai》
	多民族共生人權教育センター	2000	외국인 인권운동 및 다민족공생 사회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 전개	《メ-レック》
	在日韓國民民主統一連合	1989	한국의 군사독재정권과 비민주화에 반대하는 한인들이 결속하여 창설한 단체, 민족의 자주권 확립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 전개	《民族時報》 《自主》
	在日韓國民民主女性會	1986	한국의 군사독재정권과 비민주화에 반대하는 여성계층이 결속하여 창설한 단체, 재일한인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자녀교육문제 논의, 여성해방 실현	《ボラッピー》 《民主女性》
	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	1977	民団 산하 청년단체, 재일한인 청년문제 해결 및 정주권 획득 운동 전개	《アンニョン》
	在日本朝鮮青年同盟		總連 산하 청년단체, 일본에서의 조선청년 문제 해결 및 결속력 강화	
	在日韓國青年同盟	1960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재일한사회와 조국에 공헌할 수 있는 동포청년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우리말교실, 역사세미나, 각종 문화행사 개최	《韓青通信》 《Mail Magazine》
	在日韓國學生會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한인 학생들의 조직	
	在日同胞の生活を考える會	1987	재일한인 지식인층이 모여 창설한 자생단체, 재일한인사회의 발전과 한인들의 자주적인 삶을 위해 재일코리안운동이 지향해야 할 사상적·이론적 모델 연구	《ウリ生活》
	在日外國人障礙者の年金訴訟を支える會		외국인피폭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단체, 피복자연금관련 재판을 지원 하고 관련 소식들을 동포사회에 전달	

2. 한인단체의 정보활동

〈표 4〉에 수록한 한인단체들은 지금까지 재일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지탱해온 원동력이었다.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많은 수의 한인 2~4세들이 일본사회에 동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한인사회가 지금까지 그 ‘뿌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들 한인단체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인단체는 재일한인의 생활과 밀접히 연결된 또 하나의 ‘조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주류사회의 각종 차별과 핍박으로부터 한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이들이었으며, 본국과 일본정부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한인들이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이들이었으며, 대인관계나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화 과정의 기회를 제공한 것도 이들이었다. 이렇듯 한인단체의 존재는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조선인)도 아닌 ‘재일한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들 한인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재일한인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역사적 측면에서 이들 한인단체가 이루어온 업적은 일견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현재 모습에 실망을 느껴 이들로부터 멀어지거나 무심해지는 한인의 수가 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한인들이 절실히 원하는 일상적인 도움의 제공

처로서의 역할보다는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선전이나 조직의 해계모니를 둘러싼 이전투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온데 대한 실망이 누적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망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우리 연구팀의 조사과정에서도 종종 목도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이들 주요 한인단체들이 재일한인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생활 관련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처로서, 특히, 일상적 정보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앞서 2장에서 파악한 일상적 고민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건강과 복지 관련 정보활동'

재일한인이 일상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 중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 문제이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생활보호를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서 재일한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왔으며, 그 결과, 피고용보험 혜택이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제외되어 있는 재일한인들은 일상생활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재일한인들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同胞生活相談 センター〉²²⁾를 비롯한 〈在日コリアン生活支援センター〉, 〈同胞生活情報センター〉, 그리고 〈在日同胞福祉連合會〉와 〈ムジゲ會〉 등이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이들 단체에서는 재일한인을 상대로 건강이나 복지 관련 문제에 대해 직접 상담하거나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있으며, 특히,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들 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관지 성격의 대표적인 자료로는 〈總連〉에서 발간하고 있는 「コリアシニオネットワーク-ボラム」과 〈在日同胞福祉連合會〉에서 발간하는 「未來」 등이 있다. 이에 더해서 일선의 복지시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생산해 내고 있는데, 가령, 교토의 복지시설 〈エルファ〉에서는 「エルファ通信」을 계간으로, 오사카의 〈故郷の家〉에서는 「こころの家族」을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일한인이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안고 있는 고민의 무게에 비해, 이들 기관지 성격의 매체에서는 뚜렷한 방책이나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줄 정보원과 매체에 대한 요구가 재일한인사회에서 점점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나. '취업과 사업 관련 정보활동'

취업이나 사업과 관련한 일본사회의 '차별'이 재일한인사회의 오랜 투쟁 끝에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사회의 저변에 질게 깔려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은 한인들이

22) 總連에서 운영하는 〈同胞生活相談 センター〉에서는 한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인(재일조선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에 〈同胞生活相談綜合 センター〉를 두고 있다.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 여전히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²³⁾ 이러한 경제 관련 고민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한인단체로는 앞서 언급한 〈在日韓國商工會議所〉와 〈在日本朝鮮商工連合會〉가 있으며, 이들 외에도 〈在日韓國人商工人協會〉,²⁴⁾ 〈主日韓國企業連合會〉,²⁵⁾ 〈在日本朝鮮青年商工會〉²⁶⁾가 나름대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인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별, 직종별 구인/구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나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직접 연결해 주는 전문 한인단체도 설립되었는데, 〈同胞就職情報センター〉와 〈同胞就業情報ネットワーク〉가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에서는 사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관지나 잡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가령, 〈在日韓國商工會議所〉에서는 「架け橋」를,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에서는 「朝鮮商工新聞」과 계간지 「同胞經濟研究」를 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취업정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코리아就業情報」과 「윈도우」 등도 발간되고 있으며, 특히, 〈同胞就職情報センター〉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경제적 성격의 단체 중에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어 한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못하고 있는 곳이 종종 목도된다.²⁷⁾ 그러다보니 일본사회의 노골적인 차별로 금융 지원이나 업종 선택에서 제한을 받고, 일본인 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한인들이 제일한인사회 내에서조차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일한인 중에는 한인단체보다는 〈外國人雇用サービスセンター〉나 〈外國人労働相談コーナー〉, 〈外國人労働者辯護団〉과 같은 일본시민단체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²⁸⁾

23) 이러한 차별로 인해 제일한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유형은 일본 주류사회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제일한인의 대다수가 영세기업과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체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제일한인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24) 제일한인 기업을 중심으로 상공업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 상담과 경제 관련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5)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6) 29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젊은 세대 제일조선인의 사업을 지원하고 전국에 90여개의 지역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 사이의 상호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7) 이 부분에서는 〈在日韓國商工會議所〉나 〈在日韓國人商工人協會〉, 〈在日本韓國人連合會〉와 같은 〈民団〉 계열의 단체보다는 〈總連〉 계열의 〈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의 역할이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는 주로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일상공인을 결집하기 위한 단체로서 상공인들 간의 친목도모 성격을 강하게 지닌 반면,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에서는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가령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제일한인을 대상으로 업종과 주요 품목, 위치 선정 등에 대한 자문에서부터, 세무조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한인기업의 권익을 위해 제일한인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民団係' 한인일지라도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과 상관없이 總連에서 운영하는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교육' 관련 정보활동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고민은 자녀에게 재일한인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 줄 것인지 혹은 일본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갖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야기되어,²⁹⁾ 학교 소재와 교육내용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다. 이처럼 자녀를 둔 많은 한인들이 교육의 질과 내용 그리고 방법과 효과와 관련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한인단체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과 관련한 주요 단체로 〈民族教育文化センター〉, 〈民族教育ネットワーク〉 등이 있지만, 교육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민족교육'이라는 특수한 문제에만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³⁰⁾ 또한 〈在日韓國民民主女性會〉에서도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민족의식을 중시하면서 민족학교와 관련된 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인단체들도 대외적으로 재일한인의 '민족적 자주성' 고취라는 명분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어 자녀의 교육 전반에 걸친 재일한인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단체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타 종합적인 성격의 단체나 인권단체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정황은 이들 단체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교육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내용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평가받는 〈民族教育文化センター〉의 「한길」조차도 민족교육의 실태를 알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재일한인들은 일본에서의 자녀 교육에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지 못한 채 자녀교육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각자의 판단에 따라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28) 이들 단체에서는 재일한인의 문제를 특정 민족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인권 및 권리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29) 많은 학부모들이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고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학교의 교육은 일본을 위해 봉사하는 내용을 채워져 있다. 일본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니까 역사도 왜곡하고 있고... 일본교육으로는 우리 아이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국 학교를 보내게 되면 온실 안에 서만 자라게 되어,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건널 수 있을까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하다.” (소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와의 인터뷰, 2004년 4월 21일)

30) 가령, 〈民族教育ネットワーク〉에서는 한인단체 및 일본시민운동단체와의 폭넓은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민족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民族教育文化センター〉는 일본학교 내에서 한인 학생들의 민족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民族教育文化センター〉는 민족교육의 현장인 민족학교가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쇠퇴하자 기존의 민족교육을 새로운 형태로 재편성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바로 일본 학교 안으로 민족교육을 가지고 들어가는 '민족학급'이 그것이었다. 이 단체에서는 일본학교 내에 '민족학급' 설치를 제도화하여 재일한인 학생들이 민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 결과, 현재 오사카 시내의 일본 국립학교 중 약 20%에서 민족학급을 설치하였으며, 2,600 명가량의 재일한인 학생들이 1주일에 1-2번씩 방과 후에 민족학급에서 민족교육을 받고 있다.

라. '민생' 관련 정보활동

‘건강과 복지’, ‘사업과 취업’,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한 고민이외에도 재일한인이 ‘한인 이기에 당면하는 일상적 고민은 다양하다. 이 중에는 상속, 주거, 결혼, 이혼, 대인관계 등과 같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와, 국적이나 재류자격, 입·출국 문제 등과 같이 재일한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가 공존한다. 그러나 재일한인만이 겪는 문제는 차치하고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문제일지라도 전문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 ‘재일한인’이기에 일본 주류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한인’의 특수한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 문제로 곤경에 처한 한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단체가 〈同胞法律·生活センター〉이다.³¹⁾

〈同胞法律·生活センター〉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재일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하고 있어, 정치적 사상이나 국적, 재류권 등에 상관없이 많은 재일한인들이 고민의 해결을 위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단체이다. 이 곳에서는 변호사, 사법서사, 세무사, 행정서사, 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가 상근하면서 한인들의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한인들에게 제공하는 법률 정보는 일본의 행정당국에 찾아가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에서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갈등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재판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것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

〈同胞法律·生活センター〉에서의 법률 상담 내용은 기관지 「人權と生活」을 통해 일반 한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인들이 주로 고민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묶어 「知って得する同胞の暮らしの法律: シリーズ ① 國籍」(2003년 발간)과 「在日 コリアン暮らしの法律 Q & A」(2004년 발간) 등과 같은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매체에서는 한인들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고민하는 문제-가령, 재일한인의 국적문제나 혼인·출생·이혼·친권 문제, 일본의 외국인등록법,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 재일한인의 입국 및 출국 문제, 생계와 세무 문제, 상속법, 기타 교통사고나 직장에서의 해고, 자녀 교육 문제 등-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다루고 있어 한인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한편, 20~30대 재일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 중의 하나인 결혼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전문단체도 있다. 특히, 유사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한인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있어 결혼 정보는 개인적으로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뿐 아니라, 재일한인사회의 입장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재일한인들의 결혼에 대한 고민에 대처하고 재일한인들 간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한 목적

31) 물론 〈韓國人法律救援センター〉, 〈在日弁護士會〉 등에서도 나름대로의 법률 구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활동의 규모나 재일한인사회의 인지도에 있어 〈同胞法律·生活センター〉에 비교하기가 버거운 실정이다.

에서 民団에서는 〈結婚相談所〉를, 總連에서는 〈同胞結婚相談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결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설 단체인 〈セヌリ文化情報センター〉(구. 同胞結婚相談所)에서도 결혼을 통한 재일한인사회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특히 總連에서 운영하는 〈同胞結婚相談所〉는 동경의 중앙 센터('同胞結婚相談センター')를 비롯하여 7개의 지방 센터와 37개의 상담소로 구성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관지 「響」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인터넷 사이트 「チョンシルホンシル」을 운영하고 있다. 〈同胞結婚相談所〉에서는 한인들끼리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주선하여 교제에서 결혼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전통적인 결혼풍습을 모르는 경우 결혼식 절차와 결혼과 관련된 제례 풍습 등을 알려주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2004년 8월 현재 민족 결혼을 희망하는 재일한인 약 11,30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한 해 동안 1,420건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재일한인사회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3. 매체를 통한 정보활동

한편, 재일한인사회에는 한인사회 내부의 일상적 정보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정보매체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가령, 신문과 잡지 그리고 방송과 인터넷 사이트 등이 한인들에 의해 혹은 한인들을 위해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다. 우리 연구팀이 실시한 세 차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들 정보매체 중에서 재일한인이 일상적 정보소스로서 선호하는 매체는 인터넷, 신문, TV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단행본이나 잡지 그리고 라디오는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연구팀의 주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러한 정보매체 중에서 한인매체가 차지하는 비중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인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일본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25% vs. 75%).³²⁾ 그러나 어찌 보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재일한인이라 할지라도 일상의 주요 무대가 일본사회이고 보면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정보매체로서 일본매체에 대한 의존도와 선호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인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그 유용성에 대한 평가 또한 낮은 것은 아니었다. 한인매체는 재일한인사회의 현황과 동정에 관한 유일한 뉴스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재일한인이기에 당면하는 다양한 일상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소스로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재일한인사회에 설립되어 있는 다양한 한인단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들 한인단체에 대한 방문을 꺼리거나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32) 인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세가 높을수록 일본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았다. 직업의 경우는 비전문 서비스직 종사자와 무직자들 사이에서 특히 일본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있는 한인이라 할지라도, 한인들이 발간하는 신문이나 한인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보다 대중적으로 접근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한인들이 일상적 정보소스로서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한인매체, 특히 대표적 대중매체인 신문과 TV, 그리고 매체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매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한인 인터넷 사이트와 비록 상대적인 선호도는 낮지만 근자에 들어 종수와 발간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생활'잡지를 비롯한 '생활정보지'를 대상으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다(표 5 참조).

〈표 5〉 주요 한인매체의 현황과 발간자료

단체명	설립 년도	주요 활동	발행자료
統一日報社	1959	재일한인사회의 가장 대중적인 한인신문 '統一日報' 발간. 일본 사회와 한국사회,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매개체	《統一日報》
統一評論社	1961	민족통일을 목적으로 남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統一評論》
東洋經濟日報社		일본 현지의 경제일간지 '東洋經濟日報' 발간. 재일한인 상공인들에게 경제와 문화 정보 제공	《東洋經濟日報》
濟民日報社 (오사카 본사)	1997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취재한 재일한인 기사 및 한국판 기사를 번역하여 한인사회에 소개	《濟民日報》
民団新聞社			《民団新聞》
朝鮮新報社	1955	總連의 대표적인 출판물 제작센터. 신문 및 각종 월간지 발간	《朝鮮新報》, 《朝鮮時報》 《イオ》 등
朝鮮通信社	1952	북한의 해외통신 보도기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발신하는 보도자료를 수신하여 재일조선인들에게 전달	《朝鮮通信》
朝鮮靑年社		재일조선청년학생을 위한 도서 출판 및 보급	《セセデ》
KNTV	1996	한국방송을 일본에 소개하는 케이블 방송국	《KNTV Guide》
TV J-KOREA	2004	재일한인이 설립한 재일한인사회의 유일한 방송국(재정적인 문제로 개국과 동시에 거의 중단된 상태)	

가. 신문

재일한인사회에서 유통되는 한인신문은 크게 현지 한인사회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일본판(혹은 일본어판)으로 구분된다. 前者에 속하는 대표적인 신문으로는 「統一日報」, 「民団新聞」, 「朝鮮新報」, 「東洋經濟日報」, 「朝鮮商工新聞」, 「民族時報」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일본판으로는 「코리아뉴스(齊民日報-오사카판)」을 비롯하여 「朝鮮日報-일본판」, 「韓國日報-일본판」 등이 있다.

먼저, 재일한인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중에서 '일반 한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으로 인지도와 발행부수에 있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統一日報」이다. 1959년에 재일한인사회의 유일한 종합일간지로 출발한 「統一日報」는 2005년 현재 주간 형태로 발간되며 발행부수는 약 20만부에 이르고 있다.³³⁾ 「統一日報」는 초기에는 사회면과 문화면을 통해 재일한인사회에 관한

기사를 주로 보도하여 한인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재일한인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역할보다는 한국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로 전략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재일한인 독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해져 1998년부터는 주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현재 지면은 모두 6면으로 정치, 경제, 사회, 기획, 문화/스포츠, 재일동포사회 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다섯 면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상황을, 마지막 면에서는 재일한인사회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統一日報」는 일본어로만 제작되기 때문에 일본어에 익숙한 올드커머 한인이 주로 구독하고 있으며, 개인보다는 단체 구독자가 많은 편이다.³⁴⁾

「統一日報」가 전체 한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종합 대중지라면 「民團新聞」과 「朝鮮新報」는 각각 〈民團〉과 〈總連〉의 회원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기관지 성격의 신문이다. 먼저, 「民團新聞」은 〈民團新聞社〉에서 발행하는데 1946년에 「朝鮮新報」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어 1996년 5월부터 현재의 제호를 사용하고 있다. 週刊으로 발행되는 「民團新聞」은 모두 12면으로 구성되며, 民團의 활동에 관한 기사에 더해 재일한인사회의 주요 소식과 한국과 일본의 주요 소식을 전달하는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民團新聞」은 일본어로 제작되어 배포되는데, 2005년 현재 약 15만부를 발행하여 民團에 가입해 있는 한인에게 12만부, 그 외의 관계 기관에 3만부를 보급하고 있다.³⁵⁾ 이어 「朝鮮新報」는 〈朝鮮新報社〉에서 발행하는데 1945년 「民衆新聞」이란 제호로 창간되어 1961년부터 현재의 제호를 사용하고 있다. 「朝鮮新報」는 1996년까지는 일간으로 발행되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1999년부터는 주 3회 8면(조선어판 4면, 일본어판 4면)으로 발행되고 있다. 지면에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소식과 남한의 소식, 그리고 總連의 활동에 대한 홍보성 소식과 동포생활, 민족교육, 경제경영 관련 소식 등을 게재하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 발행되는 한인신문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선어로 발행되고 있다.³⁶⁾

이들 외에, 1946년에 창간된 「東洋經濟日報」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문화·스포츠의 교류와 재일한인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일본 현지에서 발간되는 경제전문 일간지로서, 특히 경제와

33) 면담에 응했던 〈統一日報社〉 간부의 주장이나 실제 발행부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34) 구독자 통계를 보면, 재일한인이 약 80%이고 나머지 20%는 한국이나 재일한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본의 연구소나 기관이다. 또한, 統一日報를 구독하는 재일한인의 약 60%는 자영업자나 상공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로는 30, 40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統一日報〉 관계자와의 면담 자료).

35) 「民團新聞」은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일본어판(<http://www.mindan.org/shinbun>)과 한국어판(<http://www.mindan.org/kr/newspaper>)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民團新聞社〉에서는 「民團新聞」 외에도 「民團時報」 등 여러 자료를 발행하고 있다.

36) 「朝鮮新報」는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總連에 가입한 회원과 관계기관에만 발송하고 있다. 한편, 〈朝鮮新報社〉에서는 「朝鮮新報」 외에도 일본인 기관과 단체 그리고 주요 인사에게 조선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朝鮮時報〉를 일본어로 발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사회에 조선 문제에 자신들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人民朝鮮〉을 영어로 발행하여 보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인 3~4세를 대상으로 한 월간잡지 「イオ」와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풍습을 해설하는 월간잡지 「祖國」을 발행하고 있다.

산업 관련 소식에 관심이 많은 한인 상공인들이 주로 구독하고 있다.³⁷⁾ 이어, 「朝鮮商工新聞」은 〈朝鮮人商工會〉에서 주간으로 발행하는 기관지로, 總連係 상공인들의 근황과 사업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民族時報」는 〈韓統連〉에서 매월 3회 발행하는 기관지로 4면이 발행되는데, 일본어판 2면과 한국어판 2면으로 구성된다. 주로 〈韓統連〉의 활동에 관한 기사와 통일 및 정치관련 소식을 전하며 재일한인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단체 (가령, 한국청년동맹 등)의 활동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 언론사로서는 유일하게 〈齊民日報社〉가 오사카 본사에서 「코리아 뉴스」라는 일본어 신문을 週刊으로 발행하고 있다. 「코리아 뉴스」는 모두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1-7면은 제주도에서 발간되는 「齊民日報」의 한국판 기사와 연합통신 기사를 번역해서 게재하고 있으며, 8면은 오사카 본사에서 독자적으로 취재한 한인사회에 관한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³⁸⁾ 이어, 「朝鮮日報-일본판」과 「韓國日報-일본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한국의 주재원이나 상사원 그리고 신진이주자 집단인 뉴커머의 수가 급증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제작되어 배포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한국 일간지의 일본판은 한국에서 발행된 신문을 그대로 배포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일본 현지의 소식을 접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³⁹⁾ 그러나 최근들어 한국의 주요 일간지들이 인터넷 전자신문을 일본어로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정세나 소식에 관심이 있는 재일한인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 이들 신문에 접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재일한인사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일본 현지의 기사, 특히 재일한인사회에 관한 기사를 수록하고 있는 신문과 일본 현지의 소식은 거의 없이 한국 신문의 일본판으로 제작되는 신문으로 나뉘어 진다. 그러나 일본 현지의 소식을 전달하는 신문은 「朝鮮新報」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일본어로만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뉴커머 한인들은 신문을 통해 재일한인사회의 소식이나 일본 현지의 사정을 알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일본어에 익숙한 한인이라 할지라도 이들 한인신문만을 통해서만 주류 일본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들은 일본신문을 병행하여 구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문 구독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인신문의 구독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독자의 감소는 경영 악화로 이어져 대부분의 한인신문이 일간지에서 격일간 혹은 주간지로 바뀌거나 지면의 수를 줄여가고 있다.

37) 〈東洋經濟日報社〉에서는 일간지 외에 「韓國社會情報」, 「韓國企業年鑑」 등도 매년 출판하고 있다

38) 오사카를 비롯한 關西지역에는 제주도 출신 한인동포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어려우나 약 10만명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리아 뉴스」(KOREA NEWS)는 약 3만부 정도 발행하고 있는데 이들 제주도 출신 한인들이 주요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39) 이 중에서 〈韓國日報〉는 예전에 〈韓國日報-오사카판〉이라고 해서 특별판의 형식으로 재일한인에 대한 기사를 수록하기도 하였다.

나. 방송매체

한인신문이 비교적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재일한인사회의 방송 분야 정보활동은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다. 재일한인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방송매체로는 케이블 TV社인 「TV J-KOREA」가 유일한데, 그나마 2003년 7월 현재 제정난으로 방송을 중단한 상태에 있다. 이 방송사는 ‘재일한인사회’에 초점을 두고 재일한인을 위해 현지 뉴스를 비롯 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방송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2004년 12월에 출범 하였지만,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고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개국한 지 얼마 안 되어 문을 닫는 비운에 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2005년 현재, 재일한인사회에는 재일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방송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재일한인사회의 실상과 재일한인의 일상적 관심사를 방송매체를 통해 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⁴⁰⁾

한편, 운영주체가 재일한인은 아니지만 재일한인사회와 나뉘대로의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 방송매체로는 「KNTV(Korean Now Television)」가 있다. 일본의 毎日新聞社가 운영하고 있는 이 케이블 방송사는 ‘한국방송의 콘텐츠를 일본사회에 전달하는 일본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고객 또한 대부분이 한류열풍에 의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 원하는 일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⁴¹⁾ 「KNTV(Korean Now Television)」는 원래 한국의 KT에 의해 설립된 ‘재일한인을 위한 방송’이었다. 따라서 설립 초기에는 한국의 3대 방송(KBS, MBC, SBS)을 중심으로 한국의 소식을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재일한인사회에 관한 뉴스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여 방송하기도 하였다.⁴²⁾ 그러나 IMF 외환위기로 인해 경영주가 일본의 毎日新聞社로 변경되면서 재일한인을 위한 정보매체로서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고 재일한인의 전통과 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또한 최소화되었다. 2005년 현재 「KNTV」에서 제공하는 재일한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자체 제작하는 ‘在日コリアンニュース’와 한일 공동으로 제작하는 ‘日本の

40) 이와 관련하여 TV나 라디오 같은 전파매체가 갖는 대중성과 파급성을 고려할 때 재일한인들 사이에 각종 현안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역량의 결집을 위해서라도, 특히 한인들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한인을 위한 한인에 의한 한인의 방송매체를 설립하는 문제는 시급을 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러한 요망이 TV J-KOREA의 탄생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설립주체가 개인이라는 한계와 방송 관련 전문성의 부족, 그리고 경영의 미숙 등으로 인해 모처럼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느낌이다.

41) KNTV 프로그램의 편성 방침은 철저히 고객들의 성향에 따르고 있다. 고객의 구성을 살펴보면 1997년에는 재일한인 28.3%, 일본인 71.7%였던 비율이 2004년에는 재일한인 12.1%, 일본인 87.9%로 일본인 고객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프로그램도 재일한인보다는 일본인의 성향에 맞춰져 있고 한국 소식이나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일본에서 인기있는 것을 위주로 편성하고 있다. KNTV의 프로그램 기획자는 KNTV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KNTV는 처음에는 재일한인들의 의식세계를 바꿔놓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한국을 아는 혹은 한국을 알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의식세계를 바꾸기 시작했다. 지금은 한류 스타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KNTV 영업본부장과의 면담, 2005년 1월)

42) 설립 당시 KNTV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한국의 일상을 재일한인들 및 일본인들에게 전달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여기에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꿔보고자 하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었다.

中の韓國'이 있으며, 각각 1주일에 한 번씩 방송되고 있다.

다. 인터넷 홈페이지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인 인터넷 사이트는 재일한인이 일상적 정보원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정보 매체로 여러 매체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매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태에 있다. 한인 인터넷 사이트는 특히 재일한인사회의 동향이나 모국에 관한 뉴스를 접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한인 인터넷 사이트는 크게 한인단체나 신문사 등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일반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이트로 나누어진다.

먼저, 다음의 <표 6>은 주요 한인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들 홈페이지에서는 재일한인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정보를 FAQ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게시판을 통해 직접 문의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신문사 등에서 운영하는 일부 홈페이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해당 단체의 홍보나 공지의 목적을 띠고 운영되고 있으며 수록하고 있는 콘텐츠 또한 최신성에 문제가 있어 재일한인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소스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홈페이지는 대부분이 일본어로만 제작되어 있어 일본어에 능숙하지 않은 뉴커머들 사이에서 그 활용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인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정보요구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일부 한인들, 특히 뉴커머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카페 등을 자발적으로 형성하여 일상적 관심사를 나누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다. 가령, 오사카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오사카닷컴>이나 <오사카의 모든 것> 같은 인터넷 카페는 주로 뉴커머들이 현지에서의 생활 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실질적인 일상적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한인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아르바이트나 취업 정보 그리고 부동산 정보를 비롯하여 비자문제나 재유자격문제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구할 수 있어 점차 그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뉴커머와 젊은 세대의 재일한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신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 일상적 정보소스로서의 실질적인 유용성에 있어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표 6〉 주요 한인단체의 홈페이지

기관명	Homepage
在日大韓民國民団	http://www.mindan.org
在日韓國商工會議所	http://www.kccj.org
在日韓國民主統一連合	http://www.korea-htr.com
在日韓國青年同盟	
在日韓國人連合會	http://www.haninhe.com/
在日韓國青年會	http://seinenkai.org/
在日韓國學生會	http://www.gakuseikai.jp
在日韓國民主女性會	http://www.osk.3web.ne.jp/~yeoseong
在日韓國 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在日韓國民主人權協議會	http://tokkabi.ld.infoseek.co.jp
在日朝鮮人人權協會	http://www.k-jinken.ne.jp
KOREA NGO 센터	http://korea-ngo.org/index.php
同胞法律生活 센터	http://www.tonpo-center.net
同胞生活相談綜合 센터	www.tk-dongpo.net
在日同胞福祉連合會	http://www.hi-ho.ne.jp/nwj9b081
主日韓國企業連合會	http://kofec.mireene.com/japan/
NGO 多民族共生人權教育 센터	http://www.taminzoku.com/index.html
民族教育文化 센터	
民族教育 네트워크	http://www.ne.jp/asahi/m-kyouiku/net/index.htm
在日朝鮮人總連合會	www.chonryon.com
同胞生活相談中央 센터	www.kyoron.net
朝鮮人商工會	www.korea-fci.com
同胞就職情報 센터	http://www.ilto.ne.jp/main.htm
セヌリ文化情報 센터	www.asc-net.or.jp/saenulee
統一評論信社	http://www.tongilpyongron.com

라. 잡지와 생활정보지

재일한인사회에는 앞서 언급한 신문이나 기관지 성격의 출판물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잡지가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다. 비록 일상적 정보소스로서의 유용성에 있어 재일한인들 사이의 평가가 그다지 높지는 않으나 이들 잡지 또한 재일한인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활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주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인 잡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주요 한인단체에서 생산하는 기관지 성격의 잡지, 한인단체나 연구소 혹은 언론·출판사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생산하는 재일한인사회 관련 '시사지', 그리고 국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벼룩시장'과 같은 광고지 성격의 '생활정보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중에서 기관지 성격의 잡지를 묶어서 정리해 보면, 〈在日韓國商工會議所〉에서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架け橋」, 〈在日朝鮮人商工會〉에서 계간으로 발행하는 「同胞經濟研究」, 〈在日同胞福祉連合會〉에서 발행하는 「未來」, 〈KOREA NGO 센터〉에서 발행하는 「코리아NGO 센터 - News Letter」, 〈在日大韓基督敎會〉에서 발행하는 「걸음」과 「連」, 〈在日大韓民國青年會〉에서 연2회 발행하는 「アンニョン」, 〈在日韓國青年同盟〉에서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韓青通信」,

〈在日韓國民民主女性會〉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ポラッピー」과 「民主女性」, 〈同胞法律・生活センター〉에서 발행하는 계간으로 발행하는 「人權と生活」, 〈同胞生活相談綜合センター〉에서 발행하는 「ハナ」, 〈同胞結婚相談中央センター〉에서 발행하는 「響」, 〈在日同胞の生活を考える會〉에서 연2회 발행하는 「ウリ生活」 등이 있다.

이들 기관지 성격의 잡지가 주로 회원을 상대로 제작되어 배포되는 반면, 일반 재일한인을 독자층으로 하여 다양한 관심사를 취재하고 심층 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사지로는 〈統一評論信社〉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統一評論」, 〈朝鮮靑年社〉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セセデ」, 〈アジアニュースセンター〉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코리아・トゥ데이」, 〈韓國問題研究所〉에서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韓國の聲」, 〈朝鮮新報社〉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イオ」, 〈セヌリ文化情報センター〉에서 연간 10회 발행하는 「セヌリ」, 전문잡지사인 〈アリラン〉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アリラン」, 〈民族教育文化センター〉에서 계간으로 발행하는 「한길」, 〈國際理解教育センター(KMJ)〉에서 계간으로 발행하는 「Sai」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특히 「セヌリ」⁴³⁾와 「アリラン」⁴⁴⁾은 재일한인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비롯하여 재일한인이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민생 관련 테마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기관지나 시사지에 더해 재일한인의 일상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정보소스로 기능하는 잡지류의 출판물로 '생활정보지'가 있다. 이들 생활정보지는 인권이라든지 교육, 건강, 노후, 복지 등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다루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단순 생활정보를 간략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가령, 각종 긴급 사안에 대한 대처방법, 한인사회의 주요 단체와 일본 주류사회의 주요 단체나 기관의 연락처, 상점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에 대한 안내, 아르바이트 성 구인이나 구직 광고 등을 게재하고 있어 '정착' 초기에 있는 뉴커머나 '적응' 초기에 있는 주재원 혹은 방문객들에게는 나름대로 유용한 정보소스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지면의 대부분이 광고로 채워져 있고 수록 내용에 대한 객관적 신뢰도가 떨어지며, 특히, 너무도 많은 수의 생활정보지가 난립하고 있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005년 현재 동경과 오사

43) 『セヌリ』는 재일한인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일한인들 간의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한 재일한인이 사설 〈同胞結婚情報センター〉(현 세ヌ리文化情報センター)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젊은 세대의 한인들이 역사의식이 낮고 재일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들에게 모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줄 목적으로 1989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심층 기사에 더해 재일한인사회의 민생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

44) 1992년에 창간된 「アリラン」은 사회운동적 성격의 시사정보지로 출발하였다. 단순 정보나 흥미 위주의 기사보다는 '재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재일한인의 의식 개혁에 앞장서며, 재일한인사회 내부의 융화를 주도하는 사회개혁적이고 시사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어 왔다. 그러나 재정난이 거듭 되면서 '시사지'에서 '생활정보지'로 성격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유학생 자영업자 주재원 등과 같은 뉴커머 재일한인이 일본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초창기에는 한글로만 표기하던 것을 최근에는 일본어를 병행 표기함으로써 재일한인 2, 3, 4세대에게 망라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 생활정보지와는 차별되게 사회적인 시각에서 재일한인사회를 다루는 기사를 계속 게재하고 있어 재일한인 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연구자나 관련단체에서도 여전히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카 등지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러한 생활정보지는 〈생활정보〉, 〈넷21〉, 〈해피통신〉, 〈교차로〉, 〈가로수〉, 〈시나브로〉 등 30 여종에 이르고 있다

IV. 정보활동의 한계와 문제점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재일한인사회에는 다양한 유형의 한인단체와 매체가 존재한다. 이들 한인단체와 매체는 재일한인사회를 일본사회 속의 유일한 독립적 소수민족커뮤니티로 묶어내고 유지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들은 재일한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지켜나가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민족’과 ‘뿌리’에 대한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재일한인에게 민족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줌으로써 재일한인사회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주요 한인단체마다 한국어 강좌나 춤·사물놀이와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모국의 역사나 재일한인의 권리에 대한 학습활동을 실시하며, 특히, 모국과 한인사회에 관한 각종 매체를 생산하여 보급하는 등,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활동이 재일한인을 결속시키고 재일한인사회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있어 외형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재일한인이 일상적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 특히, 일상적으로 당면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그다지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살펴본듯이, 대다수의 재일한인은 ‘민족적 정체성’이나 ‘정치적 혹은 이념적’ 문제로 인한 갈등보다는 ‘취업이나 사업’ 혹은 ‘건강이나 복지’와 같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재일한인들의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다수 한인단체가 몰두하고 있는 ‘정치적’ 활동은 일상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들만의 놀이’로 여겨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한인단체와 매체들이 이념과 사상에 따라 서로 갈라서서 사사건건 맞서거나 지나치게 ‘모국지향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 일본사회로부터 오히려 한인들을 격리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한인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한인들이 한인단체나 매체와의 접촉을 피하고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해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한 한인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온 관계자의 다음의 고백에는 그러한 실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대로 노정되어 있다.

재일동포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많은 도움이 못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재일동포의 삶보다 조국의 민주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조국의 유신독재

타도나 반민주화 투쟁을 오랫동안 전개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재일동포를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1965년 한일협정 때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조약 자체를 반대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족학교를 규제하는 일본의 외국인학교 법안과 재일동포의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국 관리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는 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재일동포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솔직히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⁴⁵⁾

이처럼 대부분 한인단체의 활동이 재일한인의 일상적 삶과 동떨어져 있다보니 일부 '복지 관련 민생' 단체의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일한인을 위한 일상적 정보원으로서의 그들의 역할과 기능은 극히 제한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재일한인들 사이에서는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의 입담이나 경험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자기 나름대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해결을 포기하고 '체념'에 몸을 맡기고 마는 행태가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연구팀의 면담에 응했던 50대 초반의 한인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남의 땅에 사는 한인으로서 여러 가지 정보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民團이나 總連과 같은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總連은 아직까지 세상물정을 모르는 같고... 民團은 XX께나 꺾는 X들이 모여 생색내기나 좋아하고... 제 주변에는 거기를 찾아가거나 거기서 나오는 신문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일본방송이나 신문에서 재일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알려주지도 않고 ... 그러다보니 이런 저런 이유로 아예 귀화해 버리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어요.

위 사람의 이야기에는 한인단체나 매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일견 역설적이게도 한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당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한인단체나 매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일본 주류사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원이나 정보매체로서는 재일한인에게 갖게 되는 문제나 관심사를 풀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재일한인이 '한인'으로서 살아가자면 어쩔 수 없이 한인단체나 매체로부터 제공되는 '한인사회'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면담과정에서 불거진 40대 후반의 전문직 종사자의 이야기에는 그러한 속내가 그대로 녹아 있다.

일본매체에 재일한인에 대한 소식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보니 한인단체에서 발간하는 기관지나 잡지 혹은 한인신문 등을 제외하곤 한인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한인단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

45) 在日韓國民民主統一連合 사무국장 김창오씨와의 인터뷰 (2003년 2월 24일)

고, 특히, 民団 등 주요 한인단체들은 우리의 일상에 관계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주고받고... 일상적 문제에 관한 주요 정보의 제공이 그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이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도 이러한 이유로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 생색내는 기사나 일반 대중매체(일본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한국신문의 현지판)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기사로나 채워져 있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면담에 응했던 여러 한인들에게서 유사한 답변이 흘러나왔다. 면담에 응한 대부분의 한인들은 재일한인사회에 설립된 단체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民団〉이나 〈總連〉 그리고 〈在日韓國商工會議所〉나 〈在日朝鮮人商工連合會〉 등과 같은 몇몇 단체를 제외하곤 어떤 단체들이 한인사회에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인지도가 높은 몇몇 단체들이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활동을 과장해서 보도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진짜 한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한인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는 지극히 인색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한인단체에 대해서는 잠재된 기대만큼 실망도 커보였으며, 특히, 이들 대표작인 한인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보자료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다.

이에 더해, 우리 연구팀의 관찰과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인들은 재일한인사회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신문이나 시사지 등 주요 출판물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⁴⁶⁾ 일부 대중적 성격의 신문이나 일반 서점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한 몇몇 시사지⁴⁷⁾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기관지나 잡지가 회원을 위해 만들어지고 우편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만 배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한인들이 그들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였다. 특히, 한인들의 밀집 거주지역에는 이러한 출판물의 유통을 담당할 만한 서점⁴⁸⁾도 좀처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그나마 지역의 공공도서관⁴⁹⁾에서도 이들 출판물의 대부분은 소장하지 않고 있었다.⁵⁰⁾ 이처럼 비록 내용이 빈약하더라도 나름대로 일상적 정보소스로서의 역할을 할만한 출판물조차도 제대로 유통되고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보니 일상적

46) “저는 한인사회에 이렇게 많은 신문과 잡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중에 몇몇은 나름대로 유용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만들어 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우리같은 사람들에게는...” (동경의 신오쿠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한인2세와의 면담자료에서).

47) 앞서 언급한 「セヌリ」, 「統一評論」 등 몇몇 잡지만이 이반 서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48) 한인사회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서점은 오사카의 〈서울서림〉과 동경의 〈장터〉가 있을 뿐이었다. 이들 서점에서는 주로 한국에서 생산된 단행본과 잡지류를 취급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운영난을 겪으면서 서점으로서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고 한류스타들의 비디오나 오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는 매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외에 북한의 서적이나 잡지 그리고 비디오 등을 취급하는 서점으로 〈コリアブックセンター〉이 있었다.

49) 우리 연구팀은 동경의 한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東京市立新大久保図書館〉과 오사카의 한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大阪市立生野図書館〉, 그리고 〈大阪市立中央図書館〉을 방문하여 한국과 조선 그리고 한인사회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관장 등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에 대한 후속 논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50) 이에 비해 30여종에 이르는 생활정보지들은 한인상점 앞을 비롯하여 한인타운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다.

정보에 대한 재일한인들의 갈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었다.

V. 결 론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재일한인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활동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재일한인사회에 설립되어 있는 주요 한인단체의 활동을 일상적 정보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소개하였고,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주요 정보매체의 생산과 유통 현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논의를 끌어감에 있어 이러한 한인단체와 매체가 재일한인의 일상적 정보요구에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재일한인의 실망과 기대를 여과 없이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초기에 의도했던 總連 계통의 단체와 매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느낌이 든다.⁵¹⁾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이 지나치게 외형적이며 고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특히, 한인단체와 매체가 재일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일상적 정보소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였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연구팀의 제안은 하나로 귀결된다. 그동안의 한인단체나 정보매체의 관점과 노력이 재일한인을 하나의 민족적 동질체로 묶어 일본 주류사회로부터의 조직적인 차별에 대항하고자 하는데 주어졌다면, 이제부터의 관점과 노력은 재일한인의 일상적 삶의 질을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쏟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적과 핏줄에 대한 집착도 중요하지만 凡人들에게 있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삶의 질'을 현실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이며, 다양한 한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러한 욕구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본적 욕구에 대한 갈구가 이미 재일한인사회에서는 '귀화'의 급증이라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51) 總連에 대한 조사는 보충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在日本朝鮮人總連合會〉중앙본부의 산하에 동경지부를 비롯한 지역지부가 48개 있으며, 각 지역지부 안에 분회들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앙본부에는 회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조직을 결성해 두고 있는데, 〈在日本朝鮮青年同盟〉, 〈在日本朝鮮民主女性同盟〉, 〈在日本朝鮮青年商工會〉, 〈在日本朝鮮人教職員同盟〉, 〈在日本朝鮮人教育會〉, 〈在日本朝鮮言論出版人協會〉, 〈在日本朝鮮社會科學者協會〉, 〈在日本朝鮮人科學技術協會〉, 〈在日本朝鮮人醫學協會〉, 〈在日本朝鮮文學藝術家同盟〉, 〈在日本朝鮮人體育連合會〉, 〈在日本朝鮮留學生同盟〉, 〈在日本朝鮮宗教人連合會〉, 〈在日本朝鮮佛教徒協會〉, 〈在日本朝鮮歷史考古學協會〉, 〈在日本朝鮮人統一同志會〉, 〈在日本朝鮮平和擁護委員會〉, 〈在日本朝鮮學生委員會〉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앞서 언급한 바 있는 〈朝鮮新報社〉, 〈朝鮮通信社〉를 비롯한 〈同胞結婚相談中央センター〉, 〈同胞就業情報センター〉, 〈同胞法律相談所〉 등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總連 조직은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각 조직이 재일한인사회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재일한인 재일조선인 등이 일본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總連 회원이 아닌 民団 계통의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세부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일한인사회를 지금과 같은 독립적인 소수민족커뮤니티로 지켜내려면 재일한인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소위 정보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정보적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구팀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한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상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유통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생활정보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타국' 땅에서 갖게 되는 일상적 고민과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재일한인이 서로 공유하게 될 때 재일한인사회의 지속성은 물론이고 재일한인의 동질성과 결집성은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종합'생활정보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기존의 한인단체와 매체가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그들로부터 받아오는 데만 익숙했던 (그러면서도 그들의 존재를 폄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모국이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정치적 혹은 외교적 목적에서 그들 중 일부 집단을 선정하여 물질로 회유하고 그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원인' 세력으로서의 '불순한' 역할은 그만 접어두고 '동포의 모체'로서 동포의 일상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만약 그 방법을 모른다면 오사카나 동경을 방문하여 거리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재일한인에게 물어보면 된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재일동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재일동포를 결집해 나갈 수 있는 세력이 분명 재일한인사회 내부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재일동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부처별로 특정 '관변' 단체에 지원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일동포를 위한 지원사업 혹은 행사라 하더라도 해당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부 한인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다. 오히려 그 예산으로 정치색을 탈피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텐데... 물론 관련 부처로서는 실적이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재일한인사회의 통합이라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재일한인 2세, 3세, 4세 그리고 뉴커머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을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재일한인사회가 4세를 넘어 이미 5세까지 나왔는데 재일한인을 통합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 한인사회를 연대시켜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매체 하나 없는 실정이다. 공적 영역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모를까, 생색내기 지원이나 이벤트성 행사의 개최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КСІ